

웨이터...택배기사...청소부...

‘타이거즈’ 따뜻한 12월



KIA 이범호(앞에서부터), 신종길, 박정수가 지난 4일 광주시 북구 임동 임대에서 진행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참가해 쌀을 배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팬과의 식사 참가

임동 ‘사랑의 쌀’ 나누기...광주천 정화 활동

KIA 예비 신인부터 최고참 최영필까지 총출동

‘호랑이 군단’이 사랑나눔으로 하나가 됐다.

12월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4·5일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다. 4일 광주천과 임동지역 골목길 정화 활동에 나선 이들은 ‘사랑의 쌀 나누기’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민들과 호흡을 같이했다. 5일에는 낙상 사고로 병상에 있는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를 열고 웨이터로 변신했다.

프로 데뷔를 앞둔 예비 신인부터 프로 야구 최고참 최영필까지, 4주 군사 훈련이 끝나자마자 달려온 나지완과 두 번의 2차 드래프트를 통해 LG로 이적했다 복귀한 외야수 윤정우 등 반가운 얼굴들로 더욱 풍성했던 행사였다.

KIA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들은 4일 ‘사랑의 쌀 나누기’ 봉사활동을 통해 경기장 인근의 기초수급 188가정에 구장 입점 업체인 미니스톱과 심시일반 마련한 사랑의 쌀 3760kg을 전달했다. 선수단과 임직원은 이날 8개 조로 나뉘어 직접 담당 지역의 가정을 돌며 20kg들이 쌀 한 포대씩을 전달했다. 쌀배달에 앞서

경기장 인근 광주천과 임동 골목길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 등 정화활동도 펼쳤다.

5일은 더 분주했다. 이날 오후 12시 KIA에서 뛰었던 투수 김성계가 웨딩마치를 울리면서 정장차림으로 하루를 연 선수들은 구단 납회식에 이어 이상화 전력분석원의 결혼식에도 참가하면서 바쁜 걸음을 했다. 오후 4시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진행된 팬 사인회를 통해 차영화 코치 돕기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종길, 윤석민, 심동섭, 양현종, 한승혁이 사인회에 참가해 수익금을 모았고, 광정철·오준혁·백용환·박찬호 등 8명의 선수는 ‘선수단과의 식사’ 이벤트에 최고액을 써낸 팬들과 식사를 하며 정성을 보였다.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는 남구 전월동 박스포 2층 메이시앙에서 일일호프가 진행됐다. ‘예비 신인’들이 KIA 선수로 행사에 참가했고, 오른손 미세 골절로 시즌을 일찍 마감했던 ‘만황’ 최영필도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4일 4주간의 군사 훈련이 끝나고 민간인으로

돌아온 나지완도 9kg가 감량된 모습으로 행사장을 찾아 선수들과 팬들의 환영을 받았다.

선수들의 애장품 경매 행사의 열기도 뜨거웠다. 김진우의 글러브가 80만원에 낙찰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고, 김주찬의 배트가 70만원에 낙찰됐다. 윤석민과 양현종도 각각 스파이크와 아이싱복 등을 내놓았다. 선수단의 사인 브로마이드도 판매되는 등 선수단과 팬들의 따뜻한 정성이 보였다.

이틀 연속 행사를 이끈 이범호는 “이렇게 선수들이 모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좋다. 선수들 모두 웃으면서 행사를 진행했다. KIA는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인기 구단인데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 못했다. 지금 어린 선수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대해 배우면 나중에 나처럼 고참급 선수가 되어서 더 활발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며 “(사랑의 쌀을 통해)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많은 팬들이 (일일호프 행사장을) 찾아주시는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잘 마무리됐다. 차영화 코치님이 완쾌되길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 전해져 쾌차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5일 오후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5’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부산 아이파크대 수원FC 경기. 수원 임성택(왼쪽)이 후반 결승골을 터뜨리고 세리머니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챌린지 2년만에 클래식...수원FC ‘기적의 질주’

승강 PO 2차전서 부산 2-0 꺾고 승격...수원삼성과 K리그 첫 ‘더비’ 탄생

2016시즌 K리그 클래식 무대에서 ‘수원 더비’가 펼쳐진다.

K리그 챌린지(2부리그) 수원 FC가 지난 5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부산 아이파크와의 2015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1·2차전 합계 3-0을 기록한 수원 FC는 부산 아이파크를 꺾고 클래식 승격의 꿈을 이뤘다. 수원 FC는 내년 시즌부터 수원을 연고로 하는 수원 삼성과 ‘수원 더비’를 펼치게 됐다.

수원 FC의 기적 같은 질주에는 자파가 있었다. 올 시즌 정규리그 32경기에서 19골(득점 3위)을 몰아넣으며 수원 FC를 이

끈 자파는 대구 FC와의 챌린지 플레이오프에서 결승골을 터트리면서 팀의 승강플레이오프행을 확정지었고, 지난 2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정민우를 도와 결승골을 만들었다.

또 적지에서 열린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에는 임성택에 이어 후반 추가시간에 추가골을 넣으면서 수원 FC의 승격에 쐐기를 박았다.

수원 FC는 승강플레이오프 승자가 되면서 K리그 챌린지에서 출발한 구단 중 처음으로 클래식 승격을 이룬 팀이 됐다. 2003년 수원시청으로 출발한 수원 FC는

실업축구 내셔널리그에서 활동하다가 2013년 챌린지 무대에 데뷔를 했다. 2013년 출범한 K리그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승격한 구단은 2013년 상주와 2014년 대전·광주이며 세 팀은 모두 강등됐다. 클래식 리그로 복귀했다.

반면 부산 아이파크는 운명이 걸린 두 경기에서 무득점으로 침묵하면서 챌린지 리그로 추락하게 됐다. 1983년 팀 창단 이후 첫 하부 리그로의 강등이며, 승강플레이오프가 시작된 2013년부터 시·도민 구단이 아닌 기업구단이 강등된 것 역시 부산 아이파크가 처음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성용 골대 불운...스완지 0-3 완패

EPL 15R 레스터시티에

‘8부리그의 기적’ 제이미 바디(28·레스터시티)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2경기 연속골 대기록 달성에 실패했다. 대신 바디는 팀동료 리아드 마레즈의 헤트트릭을 완성하는 도움을 주는 ‘헌신’을 선했다.

레스터시티는 6일(한국시간) 2015-2016 정규리그 15라운드 원정에서 마레즈의 헤트트릭을 앞세워 3-0으로 대승했다. 이날 승리로 레스터시티는 9승5무1

패(승점 32)로 맨체스터시티(승점 29)를 2위로 끌어내리고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반면 스완지시티는 최근 4경기 연속 무승(1무4패)의 부진에 빠졌다.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은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출전해 후반 33분 교체됐다.

이날 경기의 최고 관심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통산 역대 최다경기 연속골(11경기) 기록을 달성한 바디의 신기록 행진이었다. 결론적으로 바디는 이날 12경기 연속골 달성에 실패했다. 하지만 ‘팀 승리가 우선’이라고 말해온 바디는

이날 팀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스완지시티 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최고의 상승세인 레스터시티는 전반 5분 만에 결승골을 기록했다. 코너킥 상황에서 마레즈가 기성용의 방어를 뚫고 골 지역 왼쪽에서 몸으로 날아오는 볼을 골대로 밀어 넣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바디는 전반 15분 역습 상황에서 단독 기회를 잡았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골사냥에 실패했다. 결승골의 주인공 마레즈는 전반 22분 추가골을 작성했다.

전반을 0-2로 뒤진 스완지시티는 후반 2분 만에 기성용이 프리킥 상황에서 헤딩한 볼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면서 득점 기회를 날렸다. 위기를 넘긴 레스터시티는 후반 22분 쐐기골을 쏴고 승리를 완성했다. 마레즈는 역습 상황에서 바디가 페널티아크에서 내준 패스를 쐐기골로 연결하며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바디는 골욕심을 낼 필요도 없었지만 좋은 위치에 있던 마레즈에게 볼을 양보했다. 12경기 연속골 대기록의 욕심을 버리고 팀의 승리를 선택한 바디에게 관중들은 큰 찬사를 보냈다. /연합뉴스

류현진, 재활 과정 점검차 미국행

원 어깨 수술을 받고 재기를 준비 중인 왼손투수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재활 과정 점검 차 미국으로 떠났다.

류현진은 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류현진은 소속팀 다저스의 연고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2주 정도 머물다가 돌아올 계획이다. 이번 미국행은 재활 과정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류현진은 지난 5월 22일 어깨 수술을 받고 재활에 한창이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인 2013년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긴 류현진은 지난해에도 14승 7패, 평균자책점 3.38을 올리며 다저스의 3선발 자리를 굳혔다.

그는 연말을 한국에서 보내고 1월 중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스프링캠프 합류를 준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5 희망더하기 자선 야구대회'에서 선수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양준혁 야구재단 제공

홈런왕 윤석민·1루수 니퍼트...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열려



테임즈로 분장한 유희관.

양신팀-종범신팀 무승부

양준혁 야구재단이 주최하는 2015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가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이날 경기는 양준혁 재단 이사장이 이끄는 ‘양신팀’과 이종범 MBC스포츠 해설위원이 감독으로 나선 ‘종범신팀’ 팀 간 대결로 치러졌다.

지난달 열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에서 한국을 조대 챔피언에 올려놓은 국가대표 김현수·민병헌(이상 두산), 김광현(SK), 이대은(지바 롯데)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참가했다.

외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두산 투수 터스틴 니퍼트도 뜻깊은 행사에 동참했고 뉴욕 양키스의 박효준, 군 복무 중인 이용찬, 김선빈도 자리를 함께했다. 투수들의 홈런 레이스가 따로 펼쳐지고 좌익수 니퍼트, 1루수 이대은 등 평소 그라운드에서 보

기 어려운 색다른 광경을 야구팬들에게 선사했다.

‘재간둥이’ 유희관(두산·사진)은 서경장(넥센), 애릭 테임즈(NC) 등을 흥내내면서 경기 내내 웃음꽃이 끊이지 않게 했다.

두 팀은 9회까지 5-5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결국 배지현·박지영 MBC 스포츠 야나운서의 달리기 대결에서 종범신팀의 배아나운서가 이겨 종범신팀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최우수선수(MVP)에는 양신팀 진갑용(삼성)과 종범신팀 이대은이 각각 선정됐다. 유희관은 인기상을 받았다. 종범신팀의 3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나온 KIA에 이스윤석민은 2루타 포함 3안타를 터뜨렸고, 투수조 홈런왕에 오르며 숨겨진 타격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번 대회 수익금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멘토링 야구단 운영에 사용된다. /연합뉴스